

■ 아메리고 베스푸치와 ‘아메리카’ 명칭 논쟁

박 병 규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한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는 1520년 카를로스 5세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멕시코의 자연을 묘사하면서 “나는 이 사물들을 무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처럼 신대륙의 사물은 이름이 없었다. 어찌 이름이 없었겠는가마는 코르테스는 원주민의 사정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관심도 없었으니 이름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름이 없는 것은 사물만이 아니었다. 이 땅이 콜럼버스가 주장한 동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듯이 그들의 세계 인식 속에서 새로 태어난 땅을 명명하기 시작했다. 1500년 후안 데 라 코사(Juan de la Cosa), 1502년 칸티노(Cantino) 등 지도제작자와 탐험가들은 이 땅을 신대륙(Nova Terrarum), 새로운 지역(Orbe Novo) 등으로 불렀으나 이는 ‘새 땅’이라는 뜻일 뿐, 이름다운 이름은 아니었다.

엉뚱하게도 ‘아메리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지도제작자이자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였다. 베스푸치는 이탈리아 메디치(Medici) 가 밑에서 일하다 스페인으로 건너와 세비야에 머물면서 상인들과 관계를 맺었다. 지중해 연안에서 다국적으로 활동한 덕분에 베스푸치의 이름도 여러 가지로 표기한다. 당시 지식인의 언어인 라틴어로는 ‘Americus Vespucius’, 이탈리아 어로는 ‘Amerigo Vespucci’, 그리고

모험가와 지도제작자로 스페인 왕실에 봉사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로는 ‘Américo Vespucio’라고 적는다.

베스푸치가 처음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간 때가 언제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¹⁾ 아무튼 본인의 기술에 따르면 그는 모두 네 차례(1497~1498년, 1499~1500년, 1501~1502년, 1503~1504년) 여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메디치 가의 로렌초 디 피에르프란체스코(Lorenzo di Pierfrancesco de Medici)에게 보낸 편지에서²⁾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은 인도가 아니라 아시아와는 대양을 격해 있는 신세계(Mundus Novus)라고 썼다. 조금 길지만 피에르 프란체스코에게 베스푸치가 보낸 편지의 모두(冒頭)를 인용한다.



베스푸치의 동상.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http://nikhish.com>>

예전에 저는, 포르투갈 국왕 전하의 비용으로, 또 그 명을 받들어 배로 해안을 탐험하여 발견한 새로운 여러 나라에서 귀환하여 귀하에게 장문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들은 신세계라고 불려야 합당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전혀 모르던 나라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인의 견해로는, 세계의 큰 부분인, 주야평

- 1) 베스푸치는 1497년 5월 10일 스페인 탐험가 알론소 데 오헤다(Alonso de Hojeda)의 탐험대 일원으로 1497년 5월 10일 스페인의 카디스 항구를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록에 의하면 오헤다는 1497년이나 1498년에 출항한 적이 없으므로 베스푸치의 첫 여행은 1499년이라고 역사가들은 추정한다.
- 2) 이 편지는 ‘신세계’(Mundus Novus)라는 제목으로 1504년 파리에서 출판됐다.

분선[적도] 넘어 남쪽은 육지가 없고 바다뿐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대서양이라고 불렀으며, 만약 누군가 거기에 대륙이 있다고 주장하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대인의 견해는 거짓이며, 진실에 완전히 반합니다. 저는 최근 여행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남쪽 부분에서 저는 대륙을 발견했으며,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곳에는 우리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과 동물이 살고 있으며, 기후도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지역보다 훨씬 온화하고 쾌적합니다. 이 편지에서는 제가 이 신 세계에서 보거나 들은 것 가운데 주목할 만하고 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요 사항만 간단히 적으려고 합니다.

이 편지에서 베스푸치가 언급하는 탐험은 세 번째(1501~1502년) 여행이며, 신세계란 엄밀히 말하면 브라질 동북부 해안이다. 이 시기 서구인들이 아는 아메리카 대륙이란 카리브 해의 섬과 카리브 해와 대서양 연안의 아메리카 대륙뿐이었다. 아직은 아메리카 대륙의 전모를 모르던 때였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조금씩 사람들은 대서양 쪽의 아메리카 대륙 해안선을 인식의 지도에 그려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를 알지 못하는 탐험가들은 저마다 자기가 밟은 땅이 새롭다고 주장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이 편지가 독일의 지도제작자 발트제뮐러(Martin Waldseemüller)의 수중에 들어가고 난 이후다.

그 무렵 독일의 로랭(Lorraine) 공작령의 인문학자 그룹 ‘김나지움 포자겐제’(Gymnasium Vosagense)는 발트제뮐러의 주도로 “프톨레마이오스는 몰랐으나 최근 발견된 땅을 포함하는” 세계지도(Universalis Cosmographia)를 제작하고 있었다. 장당 46×62cm 크기의 목판화 12장으로 구성된 대형 지도였다. 발트제뮐러는 이 지도에서 신대륙을 아메리카로 명명하고, 지도와 같



발트제뮐러의 지도(1507). <<http://www.unc.sunysb.edu>>

이 출판한 『우주지 서설』 (Cosmographiae introductio, 1507) 7장과 9장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 네 번째 대륙은 아메리고(Americus)가 발견했기 때문에 아메리게(Amerige), 즉 아메리고의 땅, 아메리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 지구의 이 부분들은 광범위한 탐험이 이루어졌으며, 네 번째 부분은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cu Vesputiu)가 발견했다. 유럽(Europa)과 아시아(Asia)도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 부분을 아메리게(Amerige), 즉 총명한 사람 아메리고가 발견한 아메리고의 땅, 아메리카라고 부른다고 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신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는 부족한 정보와 잘못된 인식의



발트제밀러의 1507년 지도(부분). 'America'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http://fr.academic.ru>>

소산이다. 『우주지 서설』을 쓴 발트제밀러도 신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베스푸치가 아니라 콜럼버스라는 것을 깨닫고, 1517년(또는 1518년) 리용에서 출판한 개정판에서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마땅한 대안을 생각하지 못한 지도제작자들은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부단히 재생산하였다. 특히 독일의 저명한

지도제작자 세바스티안 뮌스터(Sebastian Münster)가 1544년 출판한 『세계지도』(Cosmographia)가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등 유럽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됨으로써 아메리카라는 명칭은 관례로 굳어지게 되었다.

콜럼버스는 발트제뮐러의 책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콜럼버스는 신세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그렇게 주장했건만 유감스럽게도 발트제뮐러의 책이 출판되기 한 해 전인 1506년 5월 20일 세상을 뜨고 말았다. 만약에 살았더라면 아메리카가 아니라 콜롬바(Columba)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에서 뭐라고 하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는 아메리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콜럼버스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인디아스(Indias)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들 아메리카라고 부른다. 서구 근대사의 과정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서구의 변방으로 물러나면서 독일 출판계의 '언론 플레이'가 성공한 것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아메리카라는 명칭은 1875년 스위스 출신의 미국 지리학자 쥘 마르쿠(Jules Marcou)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다시 문제가 되었다. 마르쿠에 따르면, 아메리카라는 명칭의 기원은 중미 니카라과 촌탈레스(Chontales) 지방의 산맥 이름 아메리케(Amerrique)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아메리케(Amerique)나 아메릭(Americ)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 이 산맥에 금광이 있는데, 콜럼버스는 4차 항해에서 이 사실을 알았으며, 입소문을 통해 이 말이 발트제뮐러의 귀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런 내막을 알 리 없는 발트제뮐러는 아메리카라는 명칭을 정당화하기 위해 알베리쿠스 베스티우스(Albericus Vespucius), 즉 아메리고 베스푸치를 동원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베스푸치의 이름은 알베리코(Alberico)나 아메리고(Amerigo)이지 결코 아



니카라과의 아메리케 산맥. <<http://www.panoramio.com/photo/4847704>>

메리쿠스(Americus)라고 쓴 적은 없었으며, 만약 베스푸치에서 이름을 따왔다면 신대륙은 아메리카가 아니라 베스푸티아(Vesputia)라고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름이 아니라 성을 따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당시 학계의 반응은 “그 시절 고유명사의 표기는 자의적인 면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알베리코(Alberico)와 아메리고(Amerigo), 알베리쿠스(Albericus)와 아메리쿠스(Americus) 사이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탈리아의 지리학자이자 작곡가이기도 한 루이지 우구에스(Luigi Hugues)는 1886년 『‘아메리카’라는 명칭에 관하여』(Sul Nome ‘America’)라는 책에서 발트제뮐러가 베스푸치아(Vespuccia)라고 하지 않은 까닭은 이 단어의 발음이 듣기 거북했기 때문이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유명한 사람은 성 대

신 이름을 부르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08년 또 다른 가설이 제기됐다. 영국의 골동품수집가이자 나비수집가인 앨프리드 허드(Alfred Hudd)가 아메리카라는 명칭은 영국 브리스틀의 부유한 상인 리처드 아메리케(Richard Amerike 또는 Richard Ap Meryke)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³⁾ 아메리케는 1497년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 존 카보트(John Cabot, 이탈리아 어로는 Giovanni Caboto)의 항해 비용을 지원했으며, 이 탐험에서 카보트는 '새로운 땅을 발견'(Newfoundland)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허드는 "발견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기리기 위해 새로 발견한 땅에 '아메리카'(Amerika)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주장한다. 물론 증거는 없었다. "그 당시 브리스틀에서 아메리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아마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분실된 '퍼스트 가문의 수고'(Fust MS)가 재발견된다면 말이다." 이렇게 허술한 허드의 주장은 최근에 와서 다시 부활했다. 2001년 로드니 브룸(Rodney Broome)이 『미지의 땅』(Terra Incognita: The True Story of How America Got Its Name)이라는 책에서 베스푸치와 콜럼버스가 대서양 항로를 개척할 때 카보트의 지도를 은밀히 사용한 것을 암시하는 문건을 발견했다면서 "베스푸치와 콜럼버스의 명성이 커지고 카보트의 명성이 사라짐에 따라 그들이 새로운 땅을 명명했다는 오해도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야기가 복잡해졌지만, 신대륙의 명칭에 대한 지난 500년간의 논란은 한마디로 신대륙을 둘러싸고 서구 내부에서 진행된 담론 투쟁이다. 어떻게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선점권을 비집고 들

3) 허드의 발표문은 1910년 「리처드 아메리크와 아메리카의 명칭」(Richard Ameryk and the name America)이라는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어가려고 하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입지를 약화시키려고 했고, 이에 반해 이베리아 반도의 두 제국은 인디아스라는 명칭을 고집함으로써 다른 서구 제국의 주장을 외면하려고 했다. 19세기 말에 재개된 논쟁에서 쥘 마르쿠가 아메리카라는 명칭의 신대륙 기원설을 주장한 것도 사실은 베스푸치가 콜럼버스의 업적을 찬탈했다는 서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였으며, 이를 반박한 루이지 우구에스의 주장은 같은 이탈리아인 베스푸치를 옹호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앨프리드 허드와 로드니 브룸의 주장의 핵심어도 ‘영국’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서구인들이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자국중심주의와 서구중심주의 논리에서 타자의 위치는 없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아메리카 사람들, 적어도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이 없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곳을 터전으로 여기며 생존해 온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더더구나 안중에도 없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와 라틴아메리카 지성인들은 꾸준히 탈서구적 사유를 시도해 왔다. 이런 전통 위에서 200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라틴아메리카’를 ‘인도아메리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서구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라틴아메리카의 목소리인가? 이 문제는 비록 사소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 학문의 서구 종속성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Bourne, Edward Gaylord, “The Naming of America” ,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 No. 1 (Oct., 1904), pp. 41–51.
- Cortés, Hernán, *Cartas de relación*, México: Editorial Porrúa, 1976.
- Hall, Elial F., “Americus Vespucius” , *Journal of 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of New York*, Vol. 24 (1892), pp. 366–378.
- Hudd, Alfred, “Richard Ameryk and the name America” , *Clifton Antiquarian Club*, Vol. VII (1909–10), pp. 8–24.
- Hurlbut, George C., “The Origin of the Name ‘America’ ” , *Journal of 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of New York*, Vol. 18 (1886), pp. 301–316.
- Vespucci, Amerigo, *The letters of Amerigo Vespucci and other documents illustrative of his career*, London: Printed for the Hakluyt Society, 1894.
- Waldseemüller, Martin, *The Cosmographiae introductio of Martin Waldseemüller in facsimile : followed by The four voyages of Amerigo Vespucci, with their translation into English; to which are added Waldseemüller's two world maps of 1507* , New York: United States Catholic Historical Society, 1907.
- “The man who inspired America?”, BBC, 2002년 4월 30일
<http://www.bbc.co.uk/bristol/content/features/2002/04/29/amerike.shtml>